

- 환영:**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Home!
- 구약성경필사:** 내년 창립 110주년을 준비하는 구약성경 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진행합니다.
- 예배:**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복음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신앙인이 됩시다. 다음 주일 성찬예식 거행합니다. 보좌: 민예인 전도사 손수락 장로 오금희 장로
- 목회협조위원회 모임(위원장 손수락 장로):** 오늘 친교 후 회의실 / 위원: 손수락 김사현 박송자 장정규 양경혜 정정수 송의섭 조종애 이종혁 황원규(신도대표) 이향미(연회신도대표) 오금희(임원회장) / 목회자와 스태프에 관련된 논의
- 수요 선교세미나:** 내년 창립 110주년 기념사역 파라과이 선교비전트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 / 11월 1일, 15일 강사: 유제성 목사(뉴크리에이션 & 갈보리UMC, Cal-Nev 연회 미션커미티 chair), 11월 8일, 29일 인도: 담임목사 / 기도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속장/인도자 모임:** 다음 주일(5일) 친교 후 회의실
- 2여선교회 월례회:** 다음 주일(5일) 친교 후 본당 찬양대석
- PIM 자매교회 방문:** 11월 12일 주일 프레즈노KUMC 예배 참여 및 선교비 전달 / 당일 오전 8시30분 출발
- 토요아침예배 :** 11월 4일 오전7시30분
- 주중 특별모임:** 북클럽 (격주토 오전8시, 2층 도서실) / 장구팀 (매주 금 오전10시, 2층) / 미술반 (매주일 친교후 2층)
- 주일학교:**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10시 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친교 후 2층에서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 한국학교 김장행사:** 11월11일(토) / 김치병(1갤론,해프갤론) 수집합니다. 로비 수집박스에 드랍해 주세요. (1,2여선교회협력)
- 청년부:** 예배 후에 청년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청년부실 마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수련회: 11월24-26일
- Cal-Nev 한인코커스 정기총회:** 다음 주일(5일) 주일 오후5시 콘트라코스타교회 / 교회대표 5명 참석
- 주일친교:** 오늘: 최화경 권사 / 다음 주일: 자원자 / 친교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뒷정리도 부탁드립니다.
- 교우소식:** 연락하신 교우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건강회복: 이종혁 권사, 주영옥 권사, 출타: 황원규 권사 가정

2023년 표어와 목표

표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 목표: 한 영혼 전도하기

2023년 기도제목과 성구

“한사람이 한사람 전도하여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2)

신앙생활의 핵심가치

-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Worship)
 -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공동체 (Next Generation)
 -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공동체 (Evangelism)
 -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공동체 (Fellowship)
 -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제자공동체 (Discipleship)
 -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나눔공동체 (Service)
- 1905년에 태동하고 1914년에 창립하여 한 세기를 뛰어넘는 역사를 간직한 오클랜드교회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위해 헌신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세상과 이웃을 품는 사랑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모임	시간	Oakland Sunday School	
주일예배	오전10시(대면/영상)	Children	[Worship] Sun 10am
수요찬양예배	오전10시(대면/영상)		[Bible Study] Sun 11am
토요아침예배	오전7시반(대면/영상)	Youth	
주일아침말씀방	-	Young Adults	[Gathering] After Worship
주일중보기도모임	-		

[오클랜드 한국학교 Korean School] okschool.org / 개강 8월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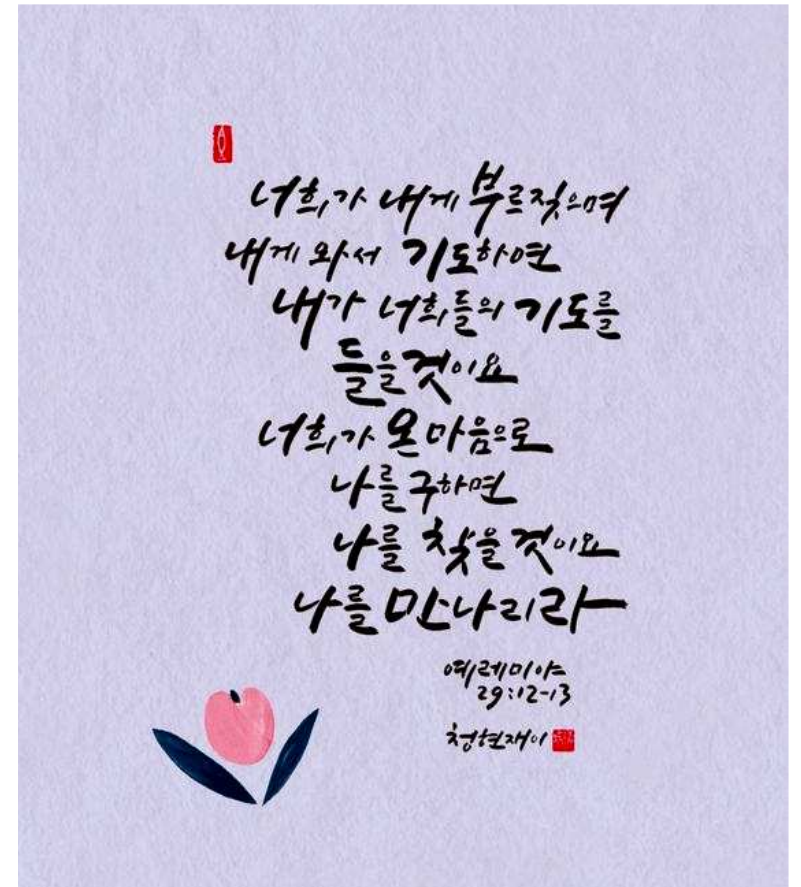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정현섭
[Lead Pastor] Hyun Jung
hsjungusa@hotmail.com
- [전도사] 민예인
- [행정간사] 김하영
- [지휘자] 최희숙
- [반주자] 공은선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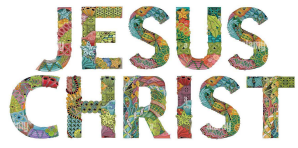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Oakland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37 E 17 Street, Oakland, CA 94606
 (510)451-9076 www.newokumc.org

The Church overflowing with Grace and Peace



주 일 예 배

2023년 10월 29일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인도 정현섭 목사 오전 10시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종교개혁주일

경배와 찬양 Worship Praise / 민예인 전도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 사도신경

찬 송 Hymn /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회 중 기 도 Prayer / 한선욱 권사

찬양대 특송 Choir Anthem / "나의 안에 거하라"

말 씬 봉 독 Bible Reading / 예레미야 27장 12~17절

설 교 Sermon / 정현섭 목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

새가족 환영과 알림 Announcement / 여선교회 특별찬양

❖ 봉헌 및 찬송 Offering, Hymn /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축 도 Benediction /

❖ 이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10월 예배섬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일	주일회중기도	주중예배	9/10월 예배섬김
1	담임목사	수요오전예배	[안내위원]
8	손수락 장로	오전10시	곽송자 권사
15	오금희 장로	*****	홍애순 권사
22	유선미 집사	토요일아침예배	[봉헌위원]
29	한선욱 권사	오전7시30분	윤숙자 권사

[수요/토요일예배: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수요오전(11/1) 오전10시 / 토요일아침(10/21) 오전7시30분

Welcome!

우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함께 교우들과 더불어 애찬을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내를 따라 목양실을 방문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문자	박경자 권사님	방문	윤숙자 권사
	엄희 집사님	한국	엄영옥 권사
	제임스 정 성도님		정지선 장로

향기로운 예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10월22일/합계: \$2,935.00]

[십일조] 강비비안 정현섭 현순정

[감사헌금] 강비비안 김국희(생일) 박혜숙 손수락 손옥순(동행)

송의섭 이진희/명숙(전시회) 임봉대 장유익/정규 전병련 조종애

[주정/월정/주일헌금] 김국희 남승연 남정우 민예인/하영 윤행자

이강은 전병련 정기호 정신애 정지선 정현섭 최인택/희숙 홍승일

[속회선교헌금] 주향한숙

[지정헌금] 오금희(피그미)

지난 주일/주중예배 참석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행2:46)		
주일대면예배	70명	토요일아침예배	16명

속 회	속장/인도자	모임보고/ 모임안내	선교후원
믿음 사랑속	윤숙자/오금희	[보고] 9/22/금/교회(오금희)/6명/\$320	나눔의동산 파라과이1
감사	이문자/황원규	[보고] 9/29/금/이학주 권사택/5명/\$120	나눔의동산
샬롬	정정자/정지선	[안내] 12/7/목/2시/정지선 장로택	예수사랑
와보라	손성리/손수락	[보고] 10/27/금/교회/5명/\$250	멕시코
온유	송재현/곽태길	[보고] 9/22/금/곽태길 권사택/10명/\$370	파라과이2
기쁨	양경혜/최인택	[보고] 8/25/금/최인택 장로택/4명/\$140	-
주향한	현순정/이종혁	[보고] 10/17/화/현수남 권사택/8명/\$130	-
청장년 청년	정지현/민예인	[보고] 9/16/토/교회/11명/\$210	기아대책

Good News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언젠가 GCC 모임에서 어느 어르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를 목회에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목회를 수월하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세요. 설교를 목회의 도구로 활용하지 마세요." 사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아직도 그때 그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설교에 목숨을 거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삶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설교로 인하여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실제로 죽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레미야가 어떤 설교를 하였기에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는 말을 듣게 됩니까? ...

예레미야서에서 '성전설교'로 일컬어지는 본문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지난 10월 첫주일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7장과 오늘 본문 예레미야 26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와의 집 문"에 서서 외치게 됩니다.

모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온 성전에서, "바로 그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정면으로 선포합니다. 성전을 비판하는 설교를 성전에서 대놓고 한 것이지요. ...

평소에 도둑질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어찌 내 앞에 서서 너희가 구원을 얻기 원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했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해도 안 되지 만 더하여도 안 되었습니다. ...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국 선을 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금기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고 이 성읍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성전의 몰락을 선포했던 겁니다.

- 10월28일 토요일아침예배(예레미야 26장) 중에서

[기쁨의 언덕으로]	30일(월) 예레미야 27장	31일(화) 예레미야 28장
매일성경통독과 묵상	1일(수) 예레미야 29장	2일(목) 예레미야 30장
10-11월: 예레미야	3일(금) 예레미야 31장	4일(토) 예레미야 32장